

#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독서논술

## 모든 일상의 것 질문... '책에서 답 찾는 태도' 학생 눈높이 맞는 독서토론대회 효과

글\_ 이소연(서울 서울고등학교 국어교사)



### 현장에서 만나는 논술의 문제점

학교에서 논술을 지도하거나 독서토론대회를 준비하면서 학생들의 글을 접해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된다. 맞춤법과 어법이 엉망인 초보 논술문이나, 논술과는 거리가 먼 수필문, 독서량이 부족하여 생각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턱없이 부족한 글, 논리의 일관성이 없는 산만한 글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글들이 쏟아져 나온다. 그 중에서 내가 가장 심각하게 여기는 문제점은 '뻔한 생각'에서 나오는 '뻔한 논술'이다. 해마다 대학 입시에서 논술 시험이 끝나고 나면 "참신하고 독창적인 논리가 아쉬웠다", "미리 준비한 글을 외워 쓴 듯이 틀에 박힌 답안이 많았다"는 총평이 나오는데, 이 역시도 깊이 없는 사고에서 비롯된 '뻔한 논술'에 대한 지적이다.

왜 이러한 논술이 나오게 되는가? 범박하게 말해 '아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진단이 두루뭉술하다 보면, '역시 독서가 중요해'라고 하는 너무나 당연한 처방을 내리며, 한숨만 쉬게 된다. 독서가 중요하지만, 책을 읽고 그 읽은 책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독서를 통해 생각하는 힘을 길러서 참신한 논술문을 쓴다는 목표 도달은 늘 요원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근래에 유행하는 독서를 통한 논술교육에서조차 논술의 주체자인 학생들은 책을 강제로 읽을 뿐 만 아니라, 책을 통해 끌어내는 생각도 교사나 전문가가 만든 내용물을 강제적으로 주입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왜 천편 일률적이고 틀에 박힌 '뻔한' 논술문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가 설명이 되는 부분이다.

### 내가 한 독서논술 교육 - 독서 토론 대회

우리 학교는 해마다 가을에 <우리 문화와 역사에 관한 독후감 발표 대회 및 독서토론 대회>를 열고 있다. 독서토론대회를 위한 준비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학기 초에 학교에서 당해 대회를 위한 권장도서를 지정해 주고, 학생들은 그 지정 도서를 읽고 여름 방학이 끝나면 독서 감상문을 논술문 형식으로 써서 제출한다. 학생들이 제출한 글들 중에서 우수 감상문을 뽑고, 다시 2차 말하기 심사를 거쳐 6,7명의 토론자들을 선정하게 된다. 나는 지난 3년 동안 이 독서토론대회를 담당했다. 선정된 토론자들을 일주일간 사고 및 토론 훈련을 시키는 것이 주요 임무였다. 먼저 토론 후보자들에게 읽은 책에서 논쟁거리가 될 만한 문제를 10개 정도 뽑아오게 했다. 그리고 각자가 뽑아온 문제에 대한 논의와 예비 토론을 통해 세 가지 정도로 쟁점을 정하고, 각 쟁점에 대해 자기 생각을 가다듬어 표현하는 훈련을 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토론 주제를 정하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 자료를 찾아 정리하며, 친구들과의 논쟁을 통해 부족한 논리를 보완하는 등 독서토론을 위한 준비를 스스로 해간다.

2003년 대회에서 지정된 책은 모두 5권이었다. 모두 역사상 중요한 인물에 관한 책이었다. 《광해군》, 《허균 평전》, 《매월당 김시습》, 《백범 일지》, 《도산 안창호》 등을 읽고 학생들은 시사와 연관된 세 가지 논제를 정해 토론을 벌였다.

- '광해군의 외교 정책을 어떻게 볼 것인가?' : 이 논제는 2003년 당시 우리나라의 이라크 파병이라는 시사 문제와 맞물리면서 학생들 간에 열띤 토론이 전개하도록 했다.

- '지식인의 바람직한 사회적 역할 어떻게 볼 것인가?' :

난세의 지식인으로서 개혁자와 은둔자라는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보여준 허균과 김시습의 삶을 비교해 보고 바람직한 지식인의 모습을 모색해 보았다.

- '민족주의, 과연 바람직한가?' : 오늘날과 같은 세계화 시대에 백범 김구의 민족주의가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가 묻고 진정한 민족주의의 모습을 찾아보는 논제였다.

2004년에는 지난해 지정 책이 너무 많았다는 비판을 고려하여 한국의 현대사 문제를 다룬 《대한민국사》 한 권으로 독서토론대회를 열었다. 저자가 우리 현대사에서 지적한 문제점들 중에서 당시 시류와 맞물려 학생들에게 민감한 사항들이 논제로 선정되었는데, 이 책과 토론 논제들은 토론자들뿐만 아니라 교사들 사이에서도 매우 상반된 반응과 의견을 낳았다.

- '박정희를 어떻게 볼 것인가?' : 박정희에 대한 상반된 평가는 현재까지도 큰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 '양심적 병역 거부' : 남학생들에게 민감한 사항이라, 다소 지엽적인 주제가 아니냐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사이에 선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졌다.

- '이라크 파병과 관련된 우리의 외교 정책' : 이미 이라크 파병이 결정된 상황이었으나, 증원이나 철수냐 등의 의견과 함께 다시 한 번 논제로 떠올랐다.

2005년에는 지정 책을 다시 늘렸다. 《대한민국사》가 너무 한쪽으로 편향된 시각을 담고 있는 책이었다는 지적에 따라, '임진왜란과 그 시대의 인물들'이라는 주제를 정해주고 임진왜란과 당대의 인물들, 선조 임금, 이순신, 원균, 유성룡 등의 인물과 관련된 책을 자유롭게 읽게 하였다.

- '선조 임금을 어떻게 볼 것인가?' : 임진왜란과 같은 혼란기에 나라의 지도자가 보여주어야 하는 모습에 대해 토론하고 선조 임금을 평가하였다.

- '이순신의 신격화는 바람직한가?' : 성웅 이순신에 대한 평가와 업적에 맞는 적절한 자리 찾아주기.

-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외교 정책, 바람직한가?' : 명나라와 청과의 관계, 일본의 관계를 통해 본 조선 외교 정책 평가 등. 2005년 독서토론대회는 책 선정부터 주제 선정까지 교사들의 입김이 많이 작용한 대회였다. 당시 중장년 남성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모방송국의 이순신 관련 드라마의 영향으로 선정

된 책과 주제였는데, 학생들과 토론 대회를 준비하면서 이 주제가 아이들 수준에는 버겁고 잘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교사들은 책을 통해 난세를 헤쳐 가는 한 영웅의 모습에서 불멸의 정신과 리더십을 배우고 당시 국제 정세를 오늘날과 연관시키기도 했지만, 학생들은 그런 주제에 심드렁해하거나 책의 깊은 의미까지는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책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고, 책을 통해 학생들이 보인 사고에도 눈높이를 맞추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처음에 학생들이 주제가 되어 진행되는 독서토론에 대해 우려했던 사람들도, 학생들이 읽은 책에 대한 토론을 통해 논제를 끌어내고, 책을 통해 얻은 지식을 현실 문제에서 적용해 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제는 독서토론 방식이 보여준 사고력 증진 효과에 신뢰를 갖게 되었다.

참신한 논술문을 쓰기 위해 필요한 참신한 사고력을 키우는 데는 독서만큼 좋은 방법이 없다고들 한다. 하지만 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무조건 무턱대고 많이 책을 읽는다고 해서 이런 사고력이 길러지는 것 같지는 않다. 먼저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 일상의 모든 것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아가는 노력이 생각의 힘을 기르는데 가장 좋은 훈련이 될 것이다. 그런 다음에 책을 읽게 된다면, 우리가 읽는 책에 대해서도 자기 속에서 우러나오는 질문을 던지고 생각하고 그 답을 찾아가는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데 도움이 될 만한 책들

일상의 모든 것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아가려는 의식적인 노력! 어떤 이들은 이것을 거창하게, '철학하기' 라고 부른다. 하지만 그런 거창한 용어를 붙이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는 일상 속에서 숨쉬듯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 다만, 그런 생각하기를 좀더 정교하게 가다듬으려는 의식적인 노력과 훈련이 수반된다면, 누구나 생활 속의 철학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소개한 책들은 하나같이 일상 속에서 그런 생각의 힘이 갖는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생각하는 힘을 기르도록 격려하고 도움을 주는 책들이다. 게다가 참신한 책의 기술 방식만으로도 읽는 이로 하여금 상상력, 사고력을 자극하도록 하는 책들이다.

《아주 철학적인 하루》 피에르 이브 부르딜 지음 | 강주현 옮김 | 사피엔티아 | 270쪽 | 값 7,500원

프랑스 철학교사가 쓴 소설. 주인공 필은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나 거울을 보면서 자신이 낯설게 느껴진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들이 모두 의심스럽고 왜 그래야만 하는지 알 수가 없어지고, 필은 그것을 병이라고 생각한다. 이 소설은 의심의 병을 앓게 된 필이 하루 동안 겪게 되는 생각의 방황과 모험의 기록이다.

우리 문화에서는 '철학' 하면 아주 어렵고 나와는 전혀 관

계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책은 철학이란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있는 것, 아주 일상적인 것이라고 말해준다. 철학이란 '생각하며 사는 것' 이고, 내안에 있는 질문과 고민을 조곤조곤 따져보는 자세, 포기하지 않고 물고 늘어지는 노력이 있다면 우리는 누구나 철학자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일상의 삶을 통해 습관, 지루함, 텔레비전의 의미에서부터 친구, 시간, 혁명, 죽음의 의미를 묻는 데까지 나아가는 필을 따라 우리도 아침부터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기까지의 일상에서 철학끼리를 찾아보자. 학생들과 같이 이 책의 제목으로 글쓰기를 해보아도 좋다.

《논쟁의 대기들》 로베르토 카사티 외 지음 | 이현경 옮김 | 열대림 | 264쪽 | 값 11,000원

두 명의 이탈리아 철학자가 일간지에 연재했던 39가지의 우화를 엮은 모음집이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일상의 사건들이 비딱하고 역설적이고 재치와 상상력 넘치는 이야기로 탈바꿈했다. 과거를 수정하는 타임머신 제작에 관한 논쟁이나, 거꾸로 시의 로또 복권 이야기,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일상의 확신을 뒤흔들기 등 현실을 기발하게 뒤집어 봄으로써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 의문을 던지는 책이다.

주인공들이 펼쳐나가는 기발하고 위트에 넘치며 상식을 넘어서는 역설들로 가득한 논쟁들을 통해 같은 사건이나 사물을 얼마나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지, 일상의 사건들이 때로는 얼마나 복잡해질 수 있는지 알게 된다. 앞에서 소개한 책과 묘한 공통점을 느끼게 되는데, 바로 일상을 통해 철학을 한다는 점, 그리고 철학은 친숙한 것이라는 깨달음을 준다는 점이다. 특히 이 책은 철학적인 사고를 한다는 것이 어렵고 두려운 일이 아니라 즐겁고 유쾌한 일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독서토론대회처럼 거창하게는 아니지만 짧은 수업시간을 통해 생각을 키우는 훈련을 하고 싶다면 이 책에 나오는 흥미로운 논쟁들을 활용해 볼 수 있다. 논리적인 사고력과 상상력이 자라나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철학, 역사를 만나다》 안광복 지음 | 웅진지식하우스 | 206쪽 | 값 9,800원

우리에게 멀고 어렵고 두려워 보이는 철학이 인간의 삶에서 어떻게 기능했는지를 쉽고 재미있게 보여주는 또한 권의 책이다. 이번에는 일상이 아니고 그 일상이 모여 이루어진 역사다. 고등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면서 논리와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을 역설해온 교사가 자신의 수업 경험을 살려 철학과 역사의 접목을 시도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역사 이야기 속에서 재미있는 철학 교육의 가능성을 발견해 낸 것이다.

플라톤의 이상 국가와 '제자백가의 시대' 로 불리던 춘추 전국 시대부터 프랑스 혁명과 마르크스의 시대를 거쳐 니체의 초인 사상과 비트겐슈타인의 '그림 이론'에 이르기까지, 2,000여년에 걸친 철학의 주요 장면을 세계사와 함께 읽어나가게 된다.

16개의 철학 역사 이야기 말미에는 현대에 인간이 직면한 문제들과 연관하여 짧은 질문이 나타나 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대립에서 엘리트주의와 평등주의 문제를 제기하고 진시황제의 강압 정치에서 독재와 경제 개발의 의미를 묻는다. 철학이 늘 인류사의 문제들에 대답하는 기능을 맡아왔다면,

지금 교실에서 우리 사회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에 착안하여, 학생들과 이 책을 읽어가면서 필자처럼 현재와 연관된 참신한 질문을 뽑아보는 연습을 한다면 사고력 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